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88호 【루계 제24336호】 주체102(2013)년 10월 15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우리 혁명의 지도적지침인 선군혁명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선군절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는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을 선군혁명의 한길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되고있다. 전당적으로, 전사회적으로 로작학습이 심화되고있으며 로작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온 나라가 끓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선군사상의 본질과 출발점, 선군사상이 밝힌 혁명리론과 정치리론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의 과학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독창적인 선군사상, 선군혁명령도로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를 펼치시고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진두에서 헤치시며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새겨주는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고귀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불멸의 지침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은 주체혁명위업승리의 진로를 명시한 강령적문헌이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강성번영의 기상을 높이 떨쳐나가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령도업적을 깊이 체득하며 그것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철저히 구현하고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선군은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이고 전통이며 영원한 승리의 항로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백두에서 개척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시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영광스러운 시대이며 선군의 위력으로 민족번영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격동적인 투쟁과 변혁의 시대이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우리 당과 인민,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으로 빛을 뿌리고있기에 우리 혁명이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순간의 침체와 답보, 사소한 헛갈림도 없이 승승장구하고있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높은 존엄과 권위, 비할바없이 강해진 우리의 국력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위대성과 견인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위대한 선군사상은 현시대를 대표하고 향도하는 혁명의 교과서이며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선군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어주신 선군혁명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야 한다.

선군혁명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충직한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땅한 본분이며 혁명적도덕의리이다.

수령에 대한 충정은 곧 수령의 혁명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이다. 영원불멸하는 위대한 혁명사상과 함께 수령은 영생한다.

선군사상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선군사상으로 정립체계화하시여 시대의 지도적지침으로 빛내이신것은 인류사상사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선군혁명사상에는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선군령도사가 집대성되여있으며 희세의 걸출한 사상리론가, 장군형의 정치가이신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위인상이 어려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선군사상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고 혁명승리를 위한 관건적문제들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고있다. 오늘날 우리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영예를 빛내여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첫째도 둘째도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언제 어디서나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해나가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정을 최대의 의무로 간직한 인민, 일편단심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삶을 빛내여가는 인민에게는 수령이 가리켜준 길에서 탈선하는 일이 추호도 있을수 없다.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셔야 하며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주체사상, 선군사상승리의 년대로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선군혁명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근본요구이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력사의 반동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헐뜯고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세계사회주의운동력사는 혁명의 총대가 약하거나 흔들리면 인민대중의 운명도,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선군혁명사상은 우리 시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가장 과학적인 전략전술이며 반제투쟁의 위력한 보검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투철한 반제자주적립장과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정신이 맥박치고있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는 철의 신념과 의지가 깃들어있다. 선군이라는 새로운 시대어자체가 장기간에 걸친 제국주의렬강들과의 첨예한 대결상태에서 나라와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모든것을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 담대한 배짱에 의해 생겨난것이다.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총대로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자주성,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빛내여나갈수 있는 정치군사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의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이며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사상을 정립체계화하시여 우리 시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만년기틀을 마련해놓으신것이 얼마나 거대한 업적인가 하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을 백승의 기치로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선군혁명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오늘의 혁명적진군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지금 우리 조국은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전례없는 건설의 대전성기를 펼쳐가고있다.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마식령스키장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으며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있다.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세포등판이 천지개벽되고 현대적인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가 단숨에 솟아나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이 격동적인 대건설전투장들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며 온 사회를 선도해나가는 전위대오가 바로 우리 인민군대이다.

선군사상은 인민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갈데 대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다. 선군사상은 사회주의사회의 혁명력량을 이루고있는 사회적집단들가운데서 혁명성과 조직성, 규률성과 전투력이 제일 강한 집단은 수령의 령도를 받는 혁명군대이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혁명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이 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인민군대의 선구자적, 핵심적역할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의 크나큰 활력이며 힘있는 박차이다. 인민군군인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마다에서 전진의 돌파구가 열리고 온 나라가 군민협동작전으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오늘의 눈부신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가슴벅차게 새겨주고있다. 선군사상으로 하여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은 더욱더 거세차게 타오를것이며 우리 조국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끊임없는 비약과 번영의 전성기를 펼쳐갈것이다.

격변하는 오늘의 시대에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문제에도 완벽한 해답을 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행운이다. 선군사상과 같은 위대한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이 있기에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며 백두산대국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선군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우리 조국의 필승의 위용과 강성번영의 기상을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선군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생명선으로 삼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지녀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우리의 력사적위업은 오늘 보다 높은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사상적일색화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인 선군사상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여기고 누구나 자신을 선군사상의 열렬한 신봉자, 철저한 관철자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로 하여 재여보고 그 요구대로 풀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주변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투쟁조건이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선군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순결하게 구현해나가려는 확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오늘의 우리 세대뿐아니라 후대들도 선군사상을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빛내이며 선군혁명승리의 력사를 끝없이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선군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는 혁명가가 학습을 하지 않으면 사상정신적량식을 얻을수 없으며 종당에는 수령의 전사, 제자로서의 도리도 지킬수 없게 된다. 학습은 혁명가의 첫째가는 임무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학습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면 장군님의 로작들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학습을 원문에 기초하여 실속있게 하여야 하며 그 진수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력사에 대한 학습도 강화하여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자질을 지니신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학습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속있게,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에 대한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우리는 로작의 매 문장과 표현들에 담겨진 심오한 뜻을 자자구구 따져가며 선군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진리성, 생활력을 깊이 파악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두에서 헤쳐오신 선군의 길이 얼마나 정당하고 긍지높은 길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인식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심장깊이 새겨야 한다.

선군혁명사상을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선군사상을 구현해나가는데서 기본은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는것이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주력군으로, 억척의 지지점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목숨은 버려도 혁명의 붉은기, 주체의 당기를 끝까지 지키고 빛내이겠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로선을 군사정치사업에 철저히 구현하고 혁명적령군체계를 확립하여 백두산혁명강군으로서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라의 전반적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우리 식의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만들어내여 우리 나라를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온 나라를 금성철벽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선군사상을 구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사상과 신념에서도 제일이고 당과 수령을 받드는 자세와 립장에서도 으뜸이다. 전체 혁명대오가 인민군대와 같이 정예화될 때 우리 혁명의 주체는 비상히 강화될것이며 선군혁명위업은 그 어떤 역경도 과감히 뚫고 승승장구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일심단결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굳게 뭉쳐야 한다. 누구나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과 권위를 먼저 생각하고 원수님과 숨결과 보폭을 함께 하는 참된 혁명동지, 진정한 혁명전우가 되여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하여야 한다.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세상에 없는 우리의 군민대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혁명군대가 앞장에 서고 군대와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면 이 세상에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 인민군장병들은 조국보위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에서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인민군대의 뒤를 따라 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여나가야 한다.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공격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인민군대 지휘관들과 사회의 지도일군들은 군민협동작전을 위한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며 군민의 정신력을 총동원하여 자기 단위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을 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과정을 통하여 선군의 길에 우리 조국과 민족의 높은 존엄과 강성번영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발휘하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내밀어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은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선군혁명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 로씨야인사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중국 베이징제화춘추경매유한공사 리사장과 로씨야 자바이깔변강상공회의소 소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중국 베이징제화춘추경매유한공사 리사장 마태평과 로씨야 자바이깔변강상공회의소 소장 말리쉐브 쎄르게이 아나똘리예비치가 9월 25일과 10월 9일 해당 나라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 나라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은 선군혁명의 향도적력량

조선로동당창건 68돐 경축집회가 6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라오스, 영국, 단마르크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집회들에는 라오스인민혁명당, 라오스조선친선협회,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선군정치연구협회, 주체사상연구소조, 조선과의 친선을 위한 영국협회, 단마르크의 공산당,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등 정당, 단체, 기관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라오스 비엔티안시 싸이타구역 사무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각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단결된 강위력한 당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라오스인민혁명당과 조선로동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영원할것이다.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한다.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북부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심화발전시키시여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하시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진보적인류의 칭송을 받고있다. 그 비결은 조선로동당이 주체사상을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는데 있다.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영국, 인디아, 로므니아, 인도네시아에서 업적토론회, 도서, 사진전시회, 음악회, 영화감상회가 5일과 7일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벅찬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주체사상탑》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은 《ㅌ.ㄷ》에서 뿌리내린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력사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의 조직력과 단결력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절세위인들의 령도따라 우리 당이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된데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디아 **김정일**로작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를 제1비서로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김정은원수각하께서는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을 진두지휘하고계신다. 그이의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경제강국을 건설하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할것이다.

영국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보름동안에 차굴천정피복공사 완공

북부철길청년돌격대 함경남도려단에서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맞으며 북부철길청년돌격대 함경남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이 려단이 맡은 차굴천정피복공사를 보름동안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통채로 청년들에게 맡겨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실천으로 보답하려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헌신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는 수백만 청년들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그 위력은 막강합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과 공화국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긍지드높이 려단에서는 9월중순에 들어와 맡겨진 구간의 차굴천정피복공사를 짧은 기간내에 끝낼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웠다.

려단자체의 힘으로 방대한 차굴천정피복공사를 제기일에 해번다는것은 참으로 힘에 부친 일이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3일낮, 3일밤을 차디찬 얼음물과 싸우며 장진강다리기둥보강전투를 진행한 경험과 비바람 휘몰아치는 속에서 단 한달동안에 차굴피복공사에 필요한 수천㎥의 혼석을 생산보장한 귀중한 체험이 있었다.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는데 전투승리의 확고한 열쇠가 있다는것을 실천속에서 절감한 려단장 황장춘, 정치부장 최창수동무를 비롯한 려단의 지휘관들은 전투시작부터 돌격대원들속에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으로 기적과 위훈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이와 함께 려단에서는 차굴천정피복공사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따라세우기 위한 조직사업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부업기지에서 생산한 고기와 남새로 돌격대원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해주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였다.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이것은 공사에 동원된 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에서 분출되는 애국의 웨침이였다.

《함남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차굴천정피복공사에서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자》라는 제목의 직관판과 《청년전위》, 《결사관철》, 《자력갱생》 등 백수십점의 표어들이 게시되고 붉은기가 힘있게 나붓기는 전투장에는 산악도 떠옮길 청춘의 기상, 단숨에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쳤다.

려단안의 전체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의 비상한 애국적열의, 대담한 공격방식에 의해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다.

천수백㎥의 모래, 자갈, 막돌과 240여t의 세멘트가 짧은 기간에 채취 및 운반되였고 받침목을 세우고 차굴천정피복공사용휘틀을 조립하는 전투가 립체적으로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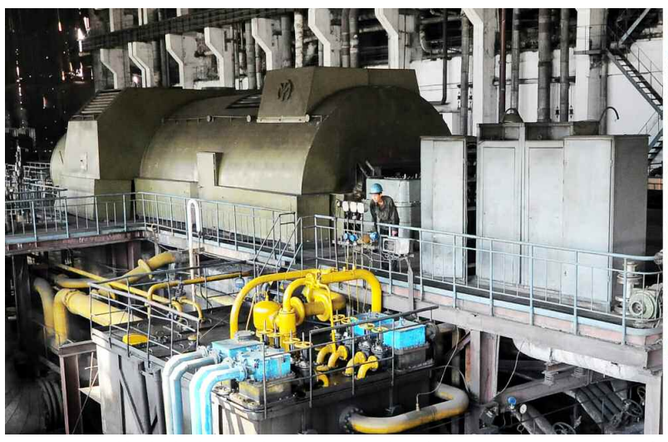
타입공들도 수m나 되는 발판우에서 낮에 밤을 이어가며 작업을 진행하였고 새로운 시공방법들이 련이어 도입되였다.

전체 청년돌격대원들이 말그대로 교대없는 전투원이 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차굴천정피복공사는 단 보름만에 끝났다.

이로써 려단은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장적으로 진행되는 차굴천정피복공사 2단계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본사기자 오철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전력을 보내주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대동강 푸른 물이 전하는 인민사랑의 전설

릉라인민유원지에 새겨진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을 더듬어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풍치수려한 릉라도에 희한한 인민의 유원지가 준공을 한 때로부터 한해 남짓이 흘렀다.

그 기간에 100여만명에 달하는 온 나라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이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며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였다.

어머니 당이 인민들에게 품들여 마련하여 안겨준 귀중한 재부가 은을 내고있는것이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세계가 거울처럼 비껴있는 릉라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싣고 대동강의 푸른 물은 오늘도 끝없이 흐르고있다.

물우에 떠있는 꽃바구니-릉라도

릉라도는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의 자랑으로 되여왔다.

대동강물결우에 실실이 휘늘어진 능수버들이 마치도 구슬같이 맑은 물우에 비단필을 풀어놓은듯 하다고 하여 예로부터 릉라도라고 불리워온 지명의 유래만 놓고보아도 우리 민족이 릉라도에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얹어왔는가를 잘 알수 있다.

릉라도의 절승경개에 보탬을 주려는듯 모란꽃과도 같이 생김새가 기묘한 모란봉이 해마다 만첩의 꽃을 피워 훈풍에 꽃잎을 날려보낸다.

이런 릉라도도 지난날 억압받던 인민대중에겐 그림의 떡과 같았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릉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보다 훌륭하게 돋구어 인민의 문화유원지로 꾸려주실 숭고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릉라도와 관련하여 무려 수십차례에 달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현지에 몸소 나오시여 유원지에 심을 나무의 종류까지 선정하여주시며 유원지건설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

그 나날에는 휴식일마저 바쳐가시며 릉라도의 래일을 펼쳐주신 뜻깊은 일요일도 있고 릉라도를 물우에 떠있는 꽃바구니와 같이 꾸리자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깃들어있다.

주체54(1965)년 4월에는 몸소 이곳에 나오시여 10여그루의 나무들을 손수 심으시며 인민의 웃음넘칠 래일을 그려보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이런 릉라도에 위대한 수령님의 리상을 활짝 꽃피우시려 크나큰 사색과 심혈을 다 기울여오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원지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주시고 이곳에 10여만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현대적인 경기장과 릉라다리를 건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도 릉라도의 더욱 황홀한 래일을 늘 가슴속에 품고계시였다.

주체99(2010)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릉라도에 유희장과 물놀이장을 꾸리는데 자금이 많이 들지만 우리 인민을 위한 일인것만큼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유희장은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만년대계의 건축물로 건설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돌이켜보면 그때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중요한 전구들은 그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장군님께 있어서 사랑하는 인민의 행복과 그들의 기쁨넘친 웃음소리가 그 무엇과도 비길데 없이 귀중하시였다. 그래서 일군들이 방대하고 긴장한 건설대상들로 하여 주저하고있을 때 건설경험이 많은 힘있는 부대를 보내주시고 유원지건설에 국가적으로 설비와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자재, 연유를 집중해주도록 하시였다.

릉라도에 현대적인 종합물놀이장을 건설하고 유희장까지 건설하면 릉라도가 더 희한해질것이고 우리 인민들 특히 청년들이 대단히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유원지건설공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100(2011)년 12월 4일에도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시여 군인건설자들이 릉라도유희장을 맡아 건설하고있는데 모든 공사를 질적으로 잘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유희장기초공사도 잘하고 유희시설설치도 잘하여 유희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며 불장식도 특별히 잘하여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

릉라도는 이렇듯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아래 전변의 새 력사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년대와 세기를 이어 위대한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새겨안게 되였다.

유원지에 메아리치는 로동당만세소리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잃은 피눈물이 아직 강토를 적시던 지난해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평양시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해 릉라도에 현대적인 종합물놀이장과 유희장을 건설하도록 하시였는데 그 대상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완공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4월말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곱등어관의 전경을 이윽토록 바라보시고나서 곱등어관이 멋있다고 만족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릉라도지구의 건설장을 다 돌아보려 한다고 하시였다. 곱등어관의 중앙홀정면에 있는 대형수조앞으로 다가서신 그이께서는 아직 공사중이여서 어지럽다고 아뢰이는 일군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먼지가 오른 수조의 유리벽을 손으로 만져보시며 연마중이여서 그런지 유리가 뿌옇고 이음짬도 보인다고, 그러나 완성되면 괜찮을것 같다고 너그럽게 말씀하시며 곱등어관의 중앙홀에 여러가지 물고기들을 보여줄수 있게 유리로 만든 수조가 좋다고, 중앙홀의 수조는 합격이라고 평가해주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연수조앞에 이르시여 릉라도에 현대적인 물놀이장과 유희장뿐아니라 희한한 곱등어관까지 건설하여놓으면 릉라도가 인민의 유원지로서는 그야말로 최고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민들이 텔레비죤으로만 보아오던 곱등어교예를 이제는 곱등어관에 와서 직접 보게 되였으니 자신의 마음도 흐뭇하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릉라물놀이장 물미끄럼대앞으로 가시여서는 일군들의 마음을 눅잦혀주시면서 정점에까지 오르시여 급경사로 아찔하게 내리뻗은 주로를 내려다보시였다.

그러시면서 물미끄럼대는 청년들에게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워줄수 있는 아주 좋은 설비이라고, 앞으로 이 물미끄럼대가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할것이라고, 물미끄럼대를 타는 사람뿐아니라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좋아할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인민사랑의 세계에 대하여 가슴후덥게 느끼고있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릉라도유희장은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건설하는 대상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지난해 12월에도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시고 릉라도유희장도 개선청년공원유희장처럼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 넘쳐나는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손색없이 잘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

진정 어버이장군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곳을 찾으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미니골프장에 큰 나무들을 심어 그늘을 지어줄데 대하여서와 탈의실가운데 놓을 옷걸이가 달린 의자를 그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손수 수첩에 그림을 그리신것도, 청량음료점에 야외식사칸을 꾸려줄데 대하여서와 릉라도식당 실내위생실을 더 꾸려주어 손색없이 하여야 한다고 하신것도, 값이 너무 비싸기때문에 관람차를 예견하려다가 그만두었다고 보고드리는 일군에게 무조건 관람차를 놔야겠다고, 이제 창전거리 불장식이 멋있게 되여 번쩍번쩍 하겠는데 인민들이 관람차를 타면 보기 좋을것이라고 이르신것도 어버이장군님께서 바라시던 일은 0.001㎜의 손색도 없이 완전무결해야 한다는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의 발현임을 일군들은 페부로 더욱 깊이 절감하였다.

얼마후 한 일군이 문득 유원지건물들의 현판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로 모시였으면 하는 간절한 청을 드리였을 때였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릉라도지구에 종합적으로 이름을 달아야 할것 같다고, 그러나 유원지명칭에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놓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8년 8월 릉라도를 찾으시고 릉라도를 인민의 유원지로 훌륭히 꾸릴데 대한 교시를 주신것만큼 릉라도지구를 릉라인민유원지로 부르는것이 좋겠습니다.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로고를 바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놓고보아도 릉라인민유원지라고 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

릉라인민유원지!

불러볼수록 정답게만 안겨오는 그 이름을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크나큰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주체101(2012)년 7월말 준공을 앞둔 릉라인민유원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현대적인 야외물놀이장을 평양시에 꾸려놓고 만족해할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무슨 일에서나 기준이 있어야 하고 본보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펼쳐지고있는것인가.

마식령스키장, 세포등판,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조선은 이렇게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며 폭풍치며 나아가고있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이 장차 어떻게 인민의 만복을 꽃피우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서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며 노래 《조국찬가》는 온 나라 강산에 끝없이 메아리친다.

…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붓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

본사기자 김명훈

청산벌을 들썩이게 한 벼가을경기

사회주의 내 조국 협동벌 그 어디에서나 벼가을걷이를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기 위한 전투가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뜻깊은 올해의 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려나가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대할수록 풍년든 청산벌에서 있었던 류다른 벼가을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벼가을이 한창이던 주체63(1974)년 10월초 어느날이였다.

이날 청산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금이삭 설레이는 풍요한 벌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못내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러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곳 관리일군에게 정보당 몇t이나 날것 같은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올리는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사를 잘했다고, 청산리가 장훈을 부른셈이라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벼가을을 언제까지 다할수 있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농장일군은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릴 일념안고 당창건기념일까지 무조건 끝내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결의를 더없이 대견하게 여기시며 그렇게 해보라고 다정히 이르시고는 농장을 떠나시였다.

그날 밤 관리일군의 생각은 깊어만갔다.

(어떻게 하면 어버이수령님께 결의다진대로 벼가을을 끝낼수 있을가. …)

이때였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마을어구로 들어서는것이였다.

(깊은 밤중에 무슨 자동차들일가?)

농장일군은 어리둥절해하며 영문을 몰라하였다.

그때 한 일군이 그의 손을 잡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을 보내주시였다고 하면서 이곳 농장으로 오게 된 사연에 대하여 격정에 넘쳐 이야기해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10월 10일까지 가을걷이를 끝내겠다고 수령님께 말씀올렸는데 농장로력과 지금 나가있는 지원로력만으로는 힘들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모레부터 하게 되여있는 예술부문과 출판보도부문의 체육경기대회를 래일로 앞당기고 첫 경기의 한 종목으로 청산협동농장 벼가을전투를 놀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전하게 되여있는 모든 선수들과 응원자들을 청산협동농장 벼가을전투경기에 다 참가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벼이삭 하나라도 흘려서는 안된다고 경기준칙까지 하나하나 설명해주시고 몸소 경기판정성원들도 정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체육경기력사에 없는 청산리벼가을경기가 첫 종목으로 선정되였으며 체육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과 응원자들을 태운 자동차행렬이 벼가을전투장으로 달려왔던것이다.

이 모든 사연을 알게 된 농장일군은 솟구쳐오르는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아 늘 안타까움을 안고있는데 이렇듯 힘과 용기를 또다시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그럴수록 그의 가슴속에는 어버이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높은 실천적성과로 보답해갈 결의가 세차게 불타올랐다.

다음날 이른아침부터 벼가을경기가 시작되였다.

첫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과 응원자들은 기세충천하여 번개같이 일손을 다그쳤으며 포전에 한알의 벼알이라도 흘릴세라 주인답게 벼가을을 해나갔다.

쉴참이면 논머리에서 펼친 예술공연이 포전을 들썩하게 하였고 밤이면 너도나도 떨쳐나 농장마을의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번듯하게 꾸려주었다.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특이한 벼가을경기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농장에서는 당창건기념일까지 벼가을전투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어버이수령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릴수 있었다.

본사기자 강철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아제르바이쟌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바꾸

아제르바이쟌공화국 대통령

일함 알리예브각하

나는 당신이 아제르바이쟌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제르바이쟌공화국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확대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2(2013)년 10월 12일 평양

박봉주총리

숙천군과 온천군의 농사실태 현지료해

박봉주내각총리는 당면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숙천군 열두삼천농장과 온천군 안석협동농장을 현지료해하였다.

총리는 모범적인 농장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을 만나 그들이 거둔 성과를 고무해주었으며 예상수확고판정정형과 련관단위들의 영농물자보장정형에 대하여 료해하고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서 총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뜻을 받들고 모든 힘을 농사에 총집중, 총동원하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우리 나라의 지대적특성과 기후풍토에 맞는 새로운 우량품종의 농작물들을 육종하는데 힘을 넣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농업부문에서 과학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하여서와 련관단위들에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필요한 전기와 연료를 원만히 보장해주어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박봉주총리 숙천군 열두삼천농장 현지료해

과학기술발전의 길에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이 있다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10돐을 맞이하고있다.

주체92(2003)년 10월 15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틀어쥐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더욱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석의 의지가 맥박치고있는 강령적문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요구에 맞게 모든 힘을 다하여 과학기술발전을 최대한으로 다그쳐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강자가 되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약자로 밀려나는것이 현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국력을 강화할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10년간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 자랑찬 로정으로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함께 과학기술중시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가장 혁명적인 우리 사상, 우리 총대에 최신과학기술이 결합되면 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변혁이 이룩되게 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신조였다. 엄혹한 시련이 겹쌓이던 고난의 시기 귀중한 자금을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대용단과 끊임없는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이 나날에 우리의 위성이 하늘을 날고 CNC기술의 패권을 쥔 기세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비약의 열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되였다. 《최첨단을 돌파하라!》, 바로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과학기술발전목표가 있고 애국의 기상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과학기술지식보급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모든 부문을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과학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적열정과 지적잠재력을 최대로 높이고 지식경제강국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안아오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과학기술은 시대를 선도하는 기관차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나가는 길에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이 있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기본요구는 짧은 력사적기간에 첨단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것이다.

과학기술발전의 기본방향을 바로 정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새 세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중심고리로 되는 과학기술, 강성국가건설에서 가장 절실한 과학기술분야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은 현시대 과학기술발전의 핵심기초기술이다. 최신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경제생활에서의 과학기술적변혁들은 다 이 분야의 발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핵심기초기술을 선차적으로 발전시켜야 새 재료, 새 에네르기, 우주기술, 핵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분야와 기계, 금속, 채취공업,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응용기술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현시대의 추세에 맞게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할수 있다. 이와 함께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기술공학을 빨리 발전시키며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 과학기술발전의 원리적, 방법론적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발전에서 남이 걸어온 단계들을 뛰여넘어 세계적수준으로 비약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며 요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는 대담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고 최신과학기술을 연구도입하는데 적극 달라붙어 최단기간에 중요분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핵심기초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전반적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선군조선의 과학기술적위력을 강화하는 혁혁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현실은 과학기술발전의 기본방향을 바로 정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할 때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는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실천은 사회적생산과정에서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고 호상작용하는 고리들이다. 생산실천은 과학기술발전의 원천이고 추동력이며 과학연구의 결과를 검증하는 기준이다. 과학기술이 생산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될수 있고 강성국가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현시대에는 과학기술이자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생산실천에 의거하여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벌리고 가치있는 과학기술을 생산에 제때에 도입하여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이다.

우리 당은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들끓는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련하기계개발자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켜 CNC공작기계생산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생산의 전과정을 치차처럼 맞물리고 생산지도와 기술지도를 밀접히 결합시켜 모든 가공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로동자들은 현대적인 설비들에 대한 운영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해나가면서 모든 부분품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생산하고있다.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높이 받들고 현대적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지난 시기에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하고 CNC공작기계계렬생산의 보다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련하의 개척정신과 창조기풍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 지식의 산업화수준이 오르면 오를수록 경제발전의 질과 속도가 그만큼 높아지는것이 바로 과학기술지식이 경제발전의 기본원동력으로 되는 오늘의 지식경제시대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은 과학기술발전의 근본담보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당의 과학기술전사, 사회주의조국의 과학자, 기술자답게 당의 사랑과 믿음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당과 조국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충정과 애국의 열정을 바쳐 과학기술탐구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의 기수이고 전초병이라면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전선의 기수이며 전초병이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속도와 높이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학기술지식과 능력에 달려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높은 실력과 불굴의 투지, 열렬한 애국심을 지닐 때 그 어떤 과학기술적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 조국건설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누가 보건말건 오로지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해온 혁명가, 참된 애국자들이다. 그들속에는 우리의 위성발사에 공헌한 30대의 영웅과학자도 있고 처녀의 몸으로 과학연구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친 녀성박사도 있으며 후대교육사업을 위하여 한생을 교단과 함께 걸어온 로교육자들도 있다. 하기에 우리 당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끝없이 아끼며 시대의 영웅으로, 선구자로 내세워주고있는것이다. 올해는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나라의 존엄과 국력이 만방에 과시된 과학자들의 해나 같다고,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증명한 과학자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배려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전선의 전초병답게 살며 투쟁해나가게 하는 생명수로 되고있다.

과학과 기술에는 사소한 편차나 에누리도 있을수 없다. 오늘 우리 당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애써 배우고 또 배워 최신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자기 부문 과학기술에 정통한 실력가로, 당과 조국의 유능한 과학기술역군으로 준비하며 정력적인 탐구와 높은 실력, 과학적량심으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믿음성있게 풀어나갈것을 바라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근로자들은 과학기술발전의 길에 조국과 민족의 강성번영이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할것이다.

리강철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이 펼친 행복의 선경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 새집들이 시작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문명강국으로 비약하는 내 조국땅에 또 하나의 행복의 선경이 펼쳐졌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에 받들려 수도 평양의 룡흥네거리에 솟아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 온 나라가 들썩하게 새집들이가 시작되였다.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훌륭히 구현되고 생활상편의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희한한 교육자살림집은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궁궐같은 집에서 부러운것 없이 교수사업과 과학연구에 전심전력하면서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어머니당의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살림집리용증서를 수여하는 모임이 14일 대학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최태복동지, 문경덕동지와 김일성종합대학 일군들, 교원, 연구사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시내 대학교원, 연구사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수여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교육자살림집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완공을 앞둔 지난 9월말 또다시 교육자살림집을 찾으시여 가구들과 바닥재, 벽지의 색갈과 무늬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액정TV와 갖가지 그릇들을 일식으로 보내주시는 친어버이사랑을 안겨주시였다.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앞두고 진행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새 집의 주인이 될 교원, 연구사들을 한품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최상의 영광과 특전을 베풀어주시였다.

연설자는 불세출의 위인, 절세의 애국자를 높이 모시여 과학기술강국,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더 높이 비약하며 번영할 백두산대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고 말하였다.

살림집을 받아안은 교원, 연구사들은 절세위인들의 축복속에 살며 일하는 직업적혁명가라는 높은 긍지와 영예드높이 인재양성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사회주의문명을 자랑하며 특색있게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교육자들의 감격과 환희가 넘쳐나는 초고층살림집마당으로는 이사짐을 실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태양의 축복을 받으며 온 나라 인민들의 부러움과 경탄속에 새 보금자리로 들어서는 집주인들의 웃음소리, 그들과 함께 이사짐을 나르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학생들로 룡흥네거리는 명절처럼 흥성이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펼쳐놓은 새집들이풍경은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꽃펴난 또 하나의 행복의 선경이다.

안팎으로 멋쟁이인 궁궐같은 살림집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안겨준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된것이 너무도 꿈만 같아 집주인들과 가족들은 북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모두는 후대들을 키우고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한생을 바쳐가는 교원들을 애국자들이라고 값높이 불러주시며 온 나라가 부러워하도록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을 지닌 소장 김상옥은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집을 받고 감격에 겨워 이렇게 말하였다.

차례진 행복이 너무도 꿈만 같고 받아안은 은덕이 하늘같아 눈물만 앞선다.

온갖 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다 갖추어진 살림집의 매 방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과 정이 가득차있어 차마 집문턱을 선뜻 넘어설수 없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령도자의 발기와 지도밑에 교육자들을 위한 살림집이 일떠선 경이적인 현실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없었다.

얼마나 위대한 어버이품, 고마운 조국의 품에 안겨사는지 심장으로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정녕 원수님의 품속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우리 지식인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다.

부부박사인 학부장 윤남, 교원 우향숙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베푸는 당의 은정은 끝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수도의 명당자리에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고 몸소 준공식장에 나오시여 우리 부부를 비롯한 교육자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고 자라난 우리 교육자들에게 직업적혁명가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고 오늘은 현대적인 가구와 비품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희한한 새 집도 무상으로 주시니 이 은덕에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위대한 스승으로 모신 교육자된 영예와 긍지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싶다.

초고층살림집의 베란다에서 아름다운 평양의 경치를 한눈에 굽어보며 교원 최창일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에 받들려 사회주의문명국의 상상봉에 내가 제일먼저 오른것만 같다.

오늘의 이 행복은 희세의 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의 교육자들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특전이고 특혜이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당의 은정속에 우리만이 아닌 온 나라의 교육자들이 받아안게 될 행복은 또 얼마나 클것인가.

강좌장 김룡흥, 교원 강진우의 심정도 한결같았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정책을 빛나게 관철하여 후대교육과 인재육성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당의 은정어린 살림집에 입사한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며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바쳐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사랑과 은정이 깃든 궁궐같은 살림집을 받아안은 감격과 기쁨 끝이 없다.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애국의 마음안고 조국산천을 아름답게 변모시킨다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

누구나 가을철국토관리사업에 적극 참가

평안북도의 시, 군들에서

평안북도에서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조국산천을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시, 군들에서는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총동원하여 자기가 사는 지역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권기관들은 자기 지역안의 국토관리사업을 빠짐없이 틀어쥐고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들과 인민들을 총동원하여 통이 크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신의주시에서 국토관리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가을철국토관리사업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국토관리구상을 가슴깊이 심어주면서 이 사업에 뜨거운 향토애, 조국애를 안고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시에서는 이번 총동원기간에 도로를 콩크리트로 포장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시민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로공사장들에 나간 시의 당, 행정일군들은 로반조성으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기술적지도를 짜고들고있다.

백토로선포장공사를 맡은 시국토환경보호관리부와 도시시설사업소, 도시건설사업소를 비롯한 기관, 기업소, 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천㎥의 흔석다짐을 질적으로 한데 이어 콩크리트포장공사를 적극 내밀었다. 그리하여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천여m의 도로를 번듯하게 포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시에서는 다른 공장, 기업소들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많은 량의 흔석과 세멘트를 마련하고 락원로선도로포장과 성남로선도로를 기술개건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시에서는 이번 총동원기간에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룡산천을 비롯한 중소하천들의 강바닥파기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시에서는 잔디밭조성사업도 적극 내밀고있다.

지난 한달 남짓한 기간에 시원림사업소를 비롯한 시의 기관, 기업소, 공장들의 근로자들과 인민반주민들은 도로와 철길, 살림집과 공공건물주변에 11만여㎡의 잔디밭을 새로 조성하였다.

향산군에서도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에서는 이번 총동원기간에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국토관리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에서는 장마피해를 입은 구두리의 다리보수공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훌륭하게 완공하였으며 10월부터는 청천강유보도옹벽보수공사와 수양리의 도로확장 및 옹벽보수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준비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여러 중소하천들의 제방보수공사와 강바닥파기를 적극 내밀고있다. 군에서는 산림경영소양묘장에서 수백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키워 산과 들을 푸르게 하는 사업도 예견성있게 짜고들고있다.

운전군과 대관군, 정주시를 비롯한 도의 모든 시, 군들에서도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당면계획과 전망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에 대중을 적극 발동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강하천들을 번듯하게 정리할 목표를 세우고

함경남도에서

함경남도에서 강하천정리사업을 통이 크게 내밀어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갈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안고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장마철에 큰물피해를 입었던 강하천들을 기본적으로 복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강바닥파기와 물줄기바로잡기, 동뚝쌓기와 개버들심기, 돌과 잔디입히기같은 것을 널리 하여 모든 강하천들을 잘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구간의 강하천바닥파기와 강하천제방복구공사를 성과적으로 해제끼고 수십개소의 큰물피해근원을 찾아내여 필요한 대책을 세웠다.

도에서는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큰물피해를 입었던 크고작은 강하천들을 전부 정리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로력조직과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강하천정리사업을 본때있게 내밀었다.

도에서는 책임성이 높고 능력있는 일군들로 큰물피해복구지휘부를 내오고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강하천정리사업을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강하천정리사업을 잘하여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과 시, 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들에서는 강하천정리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잘 알려주어 누구나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과 시, 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의 일군들은 들끓는 전투현장들에 나가 설계를 앞세우고 기술적지도를 심화시키면서 앞채를 메고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도급기관, 기업소들과 시, 군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타는 조국애, 향토애를 안고 강하천들을 원래보다 더욱 번듯하게 복구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신흥군과 북청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에서 성천강과 북청강제방복구전투를 통이 크게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신흥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방대한 성천강제방복구공사를 해제끼였다.

군에서는 읍지구에 있는 성천강좌안 14호구간의 제방공사를 통이 크게 내밀었다. 군에서는 백수십m구간에서 1만 8천여㎥의 성토공사와 1 700m²의 장석공사를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많은 로력과 륜전기재를 동원하여 군적으로 근 2㎞에 달하는 제방성토공사와 1만 5천㎥의 장석공사를 진행하여 큰물피해흔적을 말끔히 가시였다.

북청군에서는 책임일군들이 전투현장에 나가 관계부문 일군들과 협의회를 진행하고 물길돌리기와 강바닥파기를 따라세우면서 제방공사와 장석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군에서는 시공조직을 깐지게 하고 기계수단과 많은 로력을 동원하여 북청강주변에 자리잡고있는 청흥리, 장항리의 제방성토공사, 6천여㎥의 장석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단천시와 금야군, 영광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동원되여 남천과 금야강, 성천강제방대보수공사와 강바닥파기를 통이 크게 진행하며 강하천정리사업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도의 시, 군들에서는 제방보수공사와 강바닥파기를 힘있게 내미는것과 함께 우불구불한 물길을 곧게 펴고 강기슭보호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중소하천들과 호수, 저수지들의 여러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정비보수사업에도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에서는 이번 국토관리총동원기간 도로관리, 나무심기를 비롯한 도의 전반적인 국토관리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나무모기르기를 계획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자면 나무모기르기를 앞세워야 합니다.》

연탄군에서 많은 나무모를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연진성, 리정철동무를 비롯한 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은 양묘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푸른 숲은 나무모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나무모밭비배관리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리창건, 김종성동무를 비롯한 로동자들은 나무모생산을 공업화, 집약화하기 위한 준비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산림경영소에서는 대중을 발동하여 원형식회전분무장과 태양열비닐박막온실을 건설하였다. 이들의 이악한 노력에 의하여 수십종에 달하는 수만그루의 나무모들이 튼튼하게 자라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천일

도로들에 대한 보수와 관리를 정상화

함경북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로보수와 관리를 정상적으로 잘하여야 합니다.》

함경북도에서 도로관리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이번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도로관리를 국토관리사업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에서는 도로관리와 보수를 정상적으로 근기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도로들의 폭을 넓히고 방대한 량의 골재를 마련하여 콩크리트포장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도로의 평탄성을 보장하면서 방대한 옹벽공사들을 해제끼고있으며 도로표식기들을 질적으로 만들어 설치하고있다.

특히 청진-라선도로개건공사를 도자체의 힘으로 해낼 통이 큰 목표를 내걸고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꼈다. 공사에 동원된 청진시의 도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 구역들에서 달려나온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수백리에 달하는 도로의 폭을 넓히고 위험개소들에 대한 옹벽쌓기를 진행하였으며 구조물공사와 다리개건보수를 질적으로 진행하였다. 도로량옆에 위험방지석들을 세웠으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도 심어 도로의 면모를 일신시키였다.

도의 시, 군들에서 대중을 발동하여 도로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고있다.

무산군에서는 책임일군들이 도로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도로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적극 밀어주고있다. 군에서는 대형화물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조건에 맞게 이미 있던 다리들을 개건하고 새로 다리들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고있다. 또한 도로관리에서 모범적인 도로관리원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잘해나가고있다.

명간군에서는 수십리구간에 많은 량의 자갈과 석비레를 깔고 잘 다지여 도로의 평탄성을 보장하고있다. 군에서는 피자령기슭에 다리도 새로 건설하였다.

경흥군에서도 금송천에 콩크리트다리를 새로 건설하여 륜전기재들이 많은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운행시간을 단축할수 있게 하였다.

청진시와 김책시, 화대군, 회령시, 온성군에서도 도로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고 도로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잘해나가고있다. 이곳 시, 군들에서는 도로량옆에 잔디를 심고 표식기들도 새로 교체하며 도로의 문화성을 더욱 높이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함경북도의 도로들의 면모가 나날이 일신되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강원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로의 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강원도에서 도로기술개건사업에 큰 힘을 넣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에서는 이번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도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내걸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도에서는 도로기술개건사업과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단위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을 시, 군들에 내려보내여 도로기술개건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고있다.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뜨거운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고 도로기술개건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련일혁신을 창조하고있다.

평양-원산관광도로의 옹벽보수공사를 맡은 단위들에서 마식령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원산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맡은 옹벽보수과제를 짧은 기간에 끝낼 결의에 넘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필요한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매일 맡은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안변군에서는 도로의 면모를 일신시킬 목표를 세우고 대중을 적극 발동하여 여러 개소의 옹벽보수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천내군을 비롯한 도의 여러 군들에서 도로를 보다 견고하면서도 문화성이 보장되게 건설하기 위한 단계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주요도로들의 폭을 넓히는것과 함께 나무다리들을 콩크리트다리로 바꾸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의 시, 군들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 도로담당구간을 바로 정해주고 누구나 애국의 한마음으로 도로보수와 관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당의 령도따라 최첨단으로 비약하는 주체과학기술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인 로작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1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기술을 사상과 총대와 함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시였으며 주체92(2003)년 10월 15일에는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여 새 세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지난 10년간은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친 긍지높은 나날이였으며 우리 당 과학기술중시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날과 달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전적로작에서 짧은 력사적기간에 첨단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는것을 우리 당 과학기술중시로선의 기본요구의 하나로 중요하게 내세우시였으며 그 실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 우주기술과 핵기술, 콤퓨터기술을 비롯한 일련의 첨단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적수준의 현대적공장들을 수많이 일떠세운것은 우리가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 세기에 들어와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서 전략적이고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초점대상의 첨단기술분야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지난 10년동안에만도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과학기술의 종합체라고 하는 인공지구위성의 개발과 발사에서 두차례나 성공한것을 비롯하여 첨단기술개발에서 련이어 성공하였다. 특히 CNC기술의 세계적패권을 쥐고 우리 식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린것은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으로 된다.

나라의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는 당의 령도밑에 곧바른 상승의 길을 걷는 주체과학기술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준 력사의 기적과도 같은 민족사적사변이였다.

이 나날에 새로운 첨단과학기술분야들이 개척되고 발전하여 최근년간에만도 우리 식 콤퓨터조작체계, 바둑프로그람, 기계번역프로그람, 내장형조작체계, 전용집적회로설계기술, 통합생산체계, 주사굴현미경, 피형전환기술, 지하단층촬영기술, 압전소자기술 등 수십개의 과학기술부문들과 대상에서 세계선진수준에 맹렬히 도전하고있으며 금속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주체화, 현대화, CNC화가 힘있게 추진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대로 대담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고 과학기술발전에서 남이 걸어온 단계들을 뛰여넘으면서 세계적수준으로 비약하여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속에서도 우주기술과 CNC기술 등을 세계적높이에 올려세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남들이 한걸음 걸으면 열걸음, 백걸음을 달려 최단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우리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 첨단돌파시대에 들어서게 한 바로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작이 가지는 거대한 생활력이 있다.

과학기술이자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인 오늘에는 경제가 첨단기술로 얼마나 장비되였는가 하는데 따라 해당 나라의 경제력이 좌우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전적로작에서 우리의 과학기술이 생산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될수 있고 강성국가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킬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비약시키는 돌파구를 열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로고와 헌신에 의하여 주체철과 주체섬유, 주체비료, 마그네샤크링카, 타일공업 등이 거창한 규모로 일떠서 생산활성화, 정상화의 동음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초고전력전기로, 대형산소분리기, 지열설비, 이동식레루맞댐용접차, 순환비등층보이라와 같은 수많은 성능높은 기계설비와 장치들이 개발도입되여 우리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으며 항만, 간석지건설 등에서 세계적인 기적들이 창조되였다.

농업과 경공업부문에서는 여러가지 다수확농작물품종들이 육성되고 효능높은 유기질비료와 생물농약들, 새로운 농작물재배기술들이 개발도입되였으며 여러 축산기지들과 경공업공장들이 현대적기술에 의하여 일신되고 가공 및 기초식품, 화장품 등 식료품, 인민소비품생산기지들이 실리가 나게 꾸려져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풀고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들이 속속 마련되였다.

이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국가적인 사업체계가 완비되고 은정과학지구를 비롯한 중요과학지구와 과학연구기관들에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들이 꾸려져 은을 냄으로써 첨단산업발전의 토대가 닦아지게 되였으며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게 되였다.

그리하여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는 사업이 정연한 사업체계와 옳은 방법론에 기초하여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였다.

이처럼 최신과학기술이 제때에 생산에 도입되고 생산과정이 첨단기술발전을 적극 떠미는 밀착관계가 강화됨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서의 우리 과학기술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 높아진것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관철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의 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과학기술이자 경제강국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과학기술중시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흥의 롱마로, 화를 복으로 전변시켜나가는 백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고무추동한데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이 가지는 또 하나의 위대한 생활력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과학기술을 전망성있게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준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최근년간에 우리의 20대, 30대의 청년과학자들이 세계적인 두뇌경쟁의 마당으로 되고있는 소립자우주론에 대한 연구에 대담하게 뛰여들어 기초과학연구분야에서 서방위주, 서방제일주의의 관념을 깨뜨림으로써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떨치고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고있는 핵융합기술, 생물공학기술, 해양탐사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개발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가르쳐주신대로 기초과학에 대한 근시안적인 관점을 극복하고 과학기술발전의 튼튼한 원리적, 방법론적기초에 토대하여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과정에 마련된 귀중한 열매들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전망성있게, 활력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인재자원도 매우 풍부하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와 수재교육체계에서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는 나어린 학생들속에서 2중, 3중국제수학올림픽수상자를 비롯한 뛰여난 과학기술인재후비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있다.

세계적인 프로그람강자들의 대결장인 인터네트프로그람작성경연들에서 련이어 우승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치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의 혁혁한 성과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세계를 굽어보며 최첨단으로 비약하는 주체과학기술의 창창한 미래를 그려보게 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는 사회주의강성조선의 미래를 위하여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주체과학기술발전의 불멸의 대강이다.

오늘 우리의 과학기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치고있다.

과학자들이 그리는 설계도우에 우리의 앞날이 그려진다고,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펼쳐가시는 과학기술중시의 새 력사속에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존엄과 영예가 최상의 경지에 오르고있으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만년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과학기술중시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감으로써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이 땅우에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려명희

김만유병원 의료일군들

지극한 사랑과 헌신으로

얼마전 김만유병원을 찾았던 우리는 최근 이곳 의료일군들이 지극한 사랑과 헌신으로 치료사업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에 대해 알게 되였다.

그중에서도 이비인후과 및 두경부외과의 의료일군들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감동깊은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 기간 보건사업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에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온 보건부문 일군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지난 4월 어느날 과에는 자강도 화평군에서 온 김용범동무가 입원하였다.

환자는 어렸을 때 중이염을 앓은것이 원인이 되여 현재까지 20여년동안을 듣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조용한 방안에서도 큰소리로 고함치듯 말하군 하였다.

의료일군들은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염증이 오래동안 지속되다나니 고막과 신경을 전달하는 귀안의 뼈조직들이 이미 파괴되거나 사멸되여있었다. 생각했던것보다는 병이 매우 심했다.

이런 최중증상태의 환자를 치료하자면 높은 의술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의 수술부담을 견디여내야 하였다.

그러나 의료일군들은 자신들이 당해야 할 과중한 수술부담에 앞서 남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것은 물론이고 귀에서 때없이 흘러내리는 분비물로 늘 고통과 피로움속에 모대겼을 환자의 정상부터 생각하였다.

의료일군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것을 결심하고 그를 위한 방도를 모색하였다.

미세수술을 요구하는 환자인것으로 하여 오랜 시간의 수술과정에는 뜻밖의 위험이 조성될수도 있었다.

의료일군들은 거듭되는 협의회끝에 대담하게 수술할것을 결심하였다. 수술집도는 과장 홍영호동무가 직접 하였다.

과장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수술전기간 침착하면서도 민첩하게 수술칼을 쥔 손을 정확히 움직였다.

20여년동안을 병으로 고생하던 환자는 유능한 의료일군들의 높은 의술에 의하여 한달만에 정다운 부모형제들의 목소리를 듣는 경이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였다.

《내 목소리가 정녕 들리니?》

《예, 들립니다. 목소리가 정확히 들립니다.》

…

이외에도 과의 의료일군들은 첨단수술을 요구하는 각이한 병명의 최중증환자들을 원만히 치료하여 다시 혁명초소에 세워주는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언제나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고있다는 자각과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높은 의술을 소유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해온 과의료일군들의 성실한 투쟁의 결과였다.

이비인후과 및 두경부외과의 의료집단은 책임성이 높고 성실한 집단으로, 높은 의술을 소유한 실력있는 집단으로 인정되고있으며 병원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4일 세계보건기구대표단,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으며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로교수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은정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들인 교수, 박사 김은섭과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창원이 여든번째, 일흔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로교수들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시였다.

해방전 숙천군 대성리의 빈농가에서 태여난 김은섭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침략자 미제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웠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교단에 선 때로부터 48년간 과학기술인재양성과 과학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왔다.

이 나날에 여러개의 학과목을 새로 개척하고 50여종의 교과서, 참고서들을 집필하여 전공분야의 학술적토대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수십명의 재능있는 교육과학후비들을 키워냈다.

김창원도 나라의 과학기술교육의 최고전당에서 후대들을 키우는 교육자로 내세워준 당과 수령의 은정을 가슴깊이 새기고 47년간 교수교양사업에 헌신하여왔다.

그는 현대적인 실험장치들을 창안제작하고 가치있는 교육경험들을 창조하여 교육의 질개선에 이바지하였으며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수십건의 중요대상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기여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후대교육사업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로교수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과 높은 국가표창들을 수여하도록 해주신것을 비롯하여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로교수들과 가족, 친척들은 오늘의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대고조진군길에 삶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조선로동당창건 68돐경축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조선로동당 만세》 절찬속에 계속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8돐경축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조선로동당 만세》가 평양에서 계속 진행되고있다.

공연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선군조선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고 관중들의 가슴마다에 크나큰 격정과 환희를 안겨주는것으로 하여 대절찬을 받고있다.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군인들, 시내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서곡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연은 처음부터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공연무대에는 녀성중창 《조국찬가》, 녀성독창 《나의 길》, 경음악 《내 삶이 꽃펴난 곳》, 녀성독창과 방창 《조국과 나》, 현악4중주 《10월입니다》, 녀성독창 《나래치라 선군조선 천리마여》, 녀성5중창 《타오르라 우등불아》, 혼성합창 《위대한 그 이름은 승리의 기치》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근로인민의 모습을 붉은 당기폭에 새기고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인민의 천만가지 꿈을 꽃피워 인생의 영광을 안겨주는 어머니당을 격조높이 칭송한 기악과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경음악과 노래련곡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여》는 당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정이 온 장내에 차넘치게 하였다.

녀성6중창 《달려가자 미래로》,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밝다》는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쳐가는 당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희열과 긍지를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안겨주었다.

크나큰 격정과 환희가 차넘치는 무대배경에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조선로동당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근하신 영상이 모셔지자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올랐다.

관현악과 남성합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녀성중창과 합창 《사회주의 지키세》는 주체의 당기를 휘날리며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떨쳐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을 잘 보여주었다.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는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약동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보여준 공연은 종곡 《조선로동당 만세》로 끝났다.

공연을 본 관람자들은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내이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소식

우리 나라 팀 남자축구경기에서 영예의 제1위 쟁취

중국팀을 3:0으로 타승

중국의 천진에서 진행되고있는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남자축구경기에서 우리 나라 팀이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일본팀을 2:1, 중국 홍콩팀을 5:2로 이기고 남조선팀과 2:2로 비긴 우리 팀은 14일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깊은 관심속에 중국팀과 대전하였다.

필승의 신심드높이 경기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은 시작부터 팀의 전술적의도에 맞게 중간지대에서 좌우측면에로의 돌파와 빠른 공련락, 재치있는 차넣기를 하면서 맹공격을 들이대였다.

경기시간 45분경 중국팀 문전으로 길게 넘어간 공을 10번 김주성선수가 재치있게 차넣어 우승의 돌파구를 열었다.

51분경 공격마당 오른쪽에서 낮고 빠르게 넘어온 공을 문전으로 돌입하던 11번 정일관선수가 머리받기로 또다시 한꼴을 넣었다.

치렬한 공방전속에서 6번 강국철선수가 중간지대에서부터 속도빼몰기로 상대팀 방어수들을 따돌리고 련락해준 공을 63분경 16번 박광룡선수가 보기좋게 득점하였다.

중국팀을 3:0으로 타승한 우리 나라 팀은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남자축구경기에서 종합점수 10점으로 제1위를 하였다.

우리의 미더운 남녀축구선수들이 련이어 우승한데 대한 소식은 당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김설미선수 녀자유술 48kg급경기에서, 홍은정선수 체조 녀자조마운동에서

금메달 쟁취

중국 천진에서 진행되고있는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성과를 계속 거두고있다.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여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김설미선수는 녀자유술 48kg급경기에서, 홍은정선수는 체조 녀자조마운동에서 각각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예선경기들에서 맞다든 상대들을 모두 물리치고 결승경기에 출전한 김설미선수는 대담한 공격정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면서 자기의 특기를 잘 살려 남조선선수를 보기좋게 타승하였다.

홍은정선수는 평시에 련마해온 높은 기술로 시작달리기, 공중에서의 돌기와 내려디디기 등 조마운동의 동작들을 재치있게 손색없이 수행하였다.

차옥성선수는 녀자유술 52kg급경기에서, 현성철선수는 남자유술 66kg급경기에서 2위를 하여 은메달을, 리은주선수는 녀자유술 57kg급경기에서, 홍국현선수는 남자유술 73kg급경기에서 3위를 하여 동메달을 받았다.

체조 남자륜운동에서 리세광선수는 2위를, 김진혁선수는 3위를 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녀자배구경기와 체조 녀자단체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또한 김혁봉선수, 리명순선수들은 탁구 남자, 녀자단식경기들에서, 김정, 김혜성선수들은 탁구 녀자복식경기에서, 김은향선수는 체조 녀자개인종합에서, 리은하선수는 체조 녀자조마운동에서, 강영미선수는 녀자고저평행봉운동에서 3위를 하여 동메달을 받았다.

한편 우리 선수들은 제3차 아시아날치기사격선수권대회 녀자단체참호대사격경기에서, 홍은정선수는 제44차 세계체조선수권대회 녀자 조마운동에서 3위를 하였다.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평양에서 첫 공연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14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첫 공연을 진행하였다. 관현악단은 조로외교관계설정 65돐이 되는 올해를 뜻깊게 장식하려는 친선의 정을 안고 성의껏 준비한 종목들을 가지고 왔다.

박춘남문화상, 관계부문 일군들, 중앙예술단체창작가, 예술인들, 예술교육부문 교원,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알렉싼드르 찌모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관현악단은 녀성독창 《로씨야의 하늘을 날며》, 남성독창 《요 귀염둥아》, 혼성2중창 《모스크바》, 남성독창과 무용 《그 눈길에는》, 무반주합창과 남성독창 《넓고넓은 초원에서》, 합창과 관현악 《깔린까》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관현악단 단장이며 수석지휘자인 빠벨 오브쌴니꼬브가 창작형상한 합창과 관현악 《별들을 향하여 앞으로》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로 나라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국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예술적으로 훌륭하게 펼쳐보이였다.

조선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게 잘 형상한 우리 나라 노래 《불타는 소원》, 《동지애의 노래》가 무대에 올라 공연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였다.

출연자들은 자기 조국에 대한 로씨야인민의 열렬한 사랑과 민족적정서, 우리 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을 세련된 연주와 째인 안삼블, 풍부한 성량으로 잘 보여주었다. 인민배우, 공훈배우, 공훈예술가를 비롯한 이름있는 배우들의 출연으로 하여 이채로운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가 전달되였다.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남, 녀)경기소식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남, 녀)경기가 계속 진행되고있다.

14일 남자축구 평양팀과 4.25팀, 압록강팀과 월미도팀, 녀자축구 압록강팀과 갈매기팀, 청천강팀과 리명수팀사이의 경기가 있었다.

평양팀과 4.25팀사이의 경기에서는 평양팀이 4.25팀을 2:1로 이겼으며 압록강팀과 월미도팀은 0:0으로 비기였다.

녀자축구 압록강팀과 갈매기팀사이의 경기에서는 압록강팀이 5: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상대팀을 타승하고 청천강팀과 리명수팀사이의 경기는 0:0으로 끝났다.

13일에 있은 남자축구경기에서 홰불팀과 경공업성팀은 1:1로, 묘향산팀과 리명수팀은 0:0으로 비기였다.

녀자축구경기에서는 4.25팀이 평양팀을 3:0으로, 봉화산팀이 황룡산팀을 3:1로, 월미도팀이 만경봉팀을 1:0으로 이겼다.

경기는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온 나라를 세차게 격동시킨 10월의 체육열풍

성황리에 진행된 전국도대항체육경기를 두고

지난 10월 1일부터 뜻깊은 당창건기념일까지 수도 평양에서는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체육애호가들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속에 전국도대항체육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그 열흘낮, 열흘밤에 전국도대항체육경기가 몰아온 전례없는 체육열풍으로 온 나라가 들끓었다.

전국의 10개 도(시)들에서 선발된 우수한 선수들과 응원단들이 평양에 올라와 자기 지역의 명예를 걸고 치렬한 경기들을 진행하였다. 자기 고장의 선수들과 응원단을 평양으로 떠나보낸 인민들은 매일같이 경기소식들을 기다렸고 선수들과 함께 기뻐하고 안타까와하며 결승의 마지막날까지 경기결과를 주시하였다.

공화국력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전국도대항체육경기는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전투적기백과 랑만을 북돋아주었으며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투쟁에 힘찬 박차를 가해주고 새로운 리정표를 세워준 사변적인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우수성을 키워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번 전국도대항체육경기는 그 규모와 형식, 내용에 있어서 우리 체육의 발전력사에 전례없는 체육무대였다.

이번 경기에는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자강도와 량강도, 강원도, 남포시에서 올라온 근 1 000명의 선수들과 1 000명의 응원단까지 참가하여 승부를 겨루었다.

전국도대항체육경기에서는 남자롱구, 녀자배구를 비롯한 구기종목,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민족체육인 씨름, 바줄당기기 그리고 공안고 머리우에 이고 달리기, 이어달리기 등 체육유희오락경기와 같이 종목구성이 종전의 전국적인 체육경기대회들에서는 찾아볼수 없이 특색있게 되여있었다.

롱구경기는 각 도(시)체육단 팀들사이의 경기로, 배구, 탁구, 씨름, 바줄당기기, 체육유희오락경기는 대중체육경기로 진행되였다.

롱구, 배구, 탁구, 바줄당기기 등과 같은 경기들에서는 모든 참가단체들이 2개 조로 나뉘여 먼저 조별련맹전을 진행하고 매 조에서 1, 2위를 차지한 팀들은 대각경기와 직선경기를, 나머지팀들은 직선경기를 진행하여 1위부터 마지막 10위까지 결정하였다.

또한 각 도(시)들이 이번 경기에서 받은 점수들을 합하여 총점수를 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역시 1등부터 10등까지 종합순위를 가르었다.

이번 전국도대항체육경기는 선수들의 나이와 직업 등에 있어서 역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이 매우 이채로왔다.

바줄당기기경기에 함경남도와 남포시팀 등과 같이 도(시)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는가 하면 탁구경기에 도당위원회 부장, 도인민위원회 국장들도 선수로 출전하였다. 녀자배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에 굴지의 철생산기지의 종업원이며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용약 달려나간 처녀돌격대원을 비롯한 로동자, 농민, 사무원, 대학생 등 그야말로 각계층이 참가하였다. 특히 씨름경기에는 중, 소학교학생들뿐만아니라 유치원어린이들까지 나왔다.

특색있는 선수구성만을 놓고 보아도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남녀로소, 각계층모두가 혁명적열정과 랑만에 넘쳐 체육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온 나라의 체육기풍의 열도를 충분히 가늠할수 있었다.

전국도대항체육경기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날부터 각 도(시)들에서는 준비사업에서부터 치렬한 경쟁이 벌어졌다.

각지의 책임일군들이 앞장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도, 시, 군의 책임일군들이 여러가지 사업으로 드바쁜 속에서도 경기에 출전할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였다.

그 과정에 13살 나이에 키는 173㎝이고 몸무게가 굉장한 학생이 함경남도팀의 선수로 선발되여 씨름결승경기에까지 출전함으로써 관중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다.

종목별선수선발과 관련하여 평안남도의 성과가 매우 경험적이다.

평안남도에서는 녀자배구선수선발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였는데 그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이 도에서는 당의 체육정책을 받들고 대중체육사업을 적극 내밀어왔으며 올해에만도 축구, 롱구, 배구, 바줄당기기 등 다양한 종목의 시, 군대항경기를 여러차례 진행하였다. 대항경기들을 통하여 도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체육열의는 부쩍 올라갔으며 그 과정에 종목별로 체육적재능이 남다른 대상들이 속속 배출되였다.

전국도대항체육경기 녀자배구경기에 출전하여 조별련맹전 첫 경기부터 결승경기까지 전승으로 단연 우승의 영예를 떨치고 도가 종합 1등을 쟁취하는데 크게 기여한 평안남도녀자배구팀 선수들은 모두 지난 시기 활기있게 벌어진 대중체육활동과정에 이미 도적으로 주목되여있던 근로자들이였다.

이렇게 각 도(시)들에서 경쟁적으로 실정에 맞게 종목별선수선발사업을 진행하고 훈련과 경기를 위한 조건보장사업에 큰 힘을 넣은데 기초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평양에서 벌어진 전국도대항체육경기는 시작부터 치렬하였다.

남자롱구경기에 참가한 각 도(시)체육단선수들이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이악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튼튼히 다진 육체, 기술, 전술적능력을 잘 보여주고있을 때 녀자배구, 탁구, 씨름, 바줄당기기 등 다양한 대중체육경기들에서도 모든 팀 선수들은 몸도 마음도 하나로 합쳐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자기 도(시)의 명예를 걸고 만만치 않은 승벽심을 겨루어 관중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장면들을 련속 펼치였다.

나이와 사는 곳, 직업은 서로 달라도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대중체육의 활무대에서 혁명적열정과 전투적랑만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기쁨과 기어이 승리하려는 열망은 하나와 같이 컸다.

내 나라 어디에서나 누구나가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가는 자랑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체육경기장면들도 격동적이였지만 더욱 이채를 띤것은 각 도(시)들에서 올라온 응원단들의 맹렬한 활동이였다.

말그대로 모든 응원단들이 선수들과 함께 경기장에 선 심정으로 경기장밖에서도 치렬한 경쟁을 벌리였다.

성간군도로보수관리대 구봉령가족소대 김성녀할머니 등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온 녀성공로자들도 망라된 자강도의 응원단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응원기재들을 가지고 자기 지방의 특색을 잘 살리면서 경기 전기간 쉬임없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필승의 함성을 터친 각지 응원단들의 격동적인 응원은 그대로 선수들에게 끊임없는 활력을 부어주었다. 이번 전국도대항체육경기의 제일 인기있는것의 하나가 바로 응원경쟁이였다는 관중들의 말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당의 령도밑에 훌륭히 개건된 평양체육관과 수도의 여러곳에서 련일 성황을 이루며 벌어진 전국도대항체육경기의 나날 한차례한차례의 경기소식들은 급속도로 전국각지에 퍼져갔다.

황해남도당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의 사업수첩에는 자기 도팀의 매일 경기결과가 즉시에 기록되고 그것은 도소재지는 물론 군들에도 시급히 전달되였다.

시, 군책임일군들이 경기성과소식을 농업근로자들에게 기동성있게 알려주면서 모두가 기쁨에 넘쳐 당면한 농사일을 더욱 불같이 다그치도록 고무추동하였다.

황해남도뿐아닌 각 도(시)가 경기 전기간 그렇게 끓었다. 자기 팀의 승리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고 혁신창조의 불길이 더 활활 타올랐다.

매일매일의 경기소식들을 담은 신문기사, 텔레비죤방송에 대한 인기가 끝없이 올라가는 속에 누구나가 체육에 대한 관심을 부쩍 높이고 대중체육활동의 랑만도 더 활짝 꽃피웠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대중체육부문 여러 종목 결승경기가 평양체육관에서 성대히 진행됨으로써 전국도대항체육경기는 최절정을 이루었고 경기참가자들뿐아니라 온 나라 인민의 체육열의는 더욱 충천해졌다.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훌륭히 개건된 평양체육관에서 처음으로 진행된것이 바로 전국도대항체육경기이고 대중체육부문 여러 종목 결승경기가 다름아닌 우리 당의 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진행된것은 주체체육발전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이루는 력사적인 사변이라고 말할수 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지난 수십년동안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체육방침이다.

주체35(1946)년 10월 6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체육인대회를 마련해주시고 **《체육을 대중화하기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해방된 새 조선의 체육은 몇몇 개인선수들을 내세우기 위한 체육으로, 얼마 안되는 사람들의 놀음거리로 될것이 아니라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는 전인민적체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귀전에 쟁쟁히 들려온다.

어버이수령님 그대로 언제나 체육을 중시하시며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 **《대중체육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나라일에 바쁘신 속에서도 예술인체육대회, 대학생축구경기 등을 관람하시면서 대중체육발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체육의 거대한 견인력으로 우리 인민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더욱 튼튼히 키우며 조국의 영예를 누리에 더욱 빛내이시려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헌신의 력사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더욱 빛나고있는것이 오늘 내 나라의 가슴벅찬 현실이다.

우리 체육인들이 례년에 보드문 국제경기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하고있는 올해에만도 당의 뜨거운 손길아래 태양절을 맞으며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가, 5.1절을 맞으며 보건부문 근로자들의 체육경기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뜻깊은 10월에는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체육인들이 안아올리는 자랑찬 금메달소식들이 련이어 전해지고있는것과 동시에 각 도(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전국도대항체육경기가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여 온 나라가 비상한 체육열풍으로 끓어번졌다.

선군조국에 펼쳐진 이 격동적인 화폭은 전체 인민의 힘으로 체육강국을 건설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며 공화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끝없이 빛내이려는 우리 당의 의지가 낳은 력사의 필연이다.

우리 인민은 훌륭히 개건된 평양체육관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맞는 뜻깊은 10월 10일에 진행된 전국도대항체육경기 대중체육부문 여러 종목의 결승경기를 되새겨보며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당의 령도따라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드세차게 일으킬 때 체육강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투쟁의 진리를 누구나 심장깊이 새기고있다.

전국도대항체육경기에서 종합 1등은 평안남도, 2등은 황해남도, 3등은 남포시가 하였으며 함경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자강도, 량강도 등의 순서로 나머지순위가 결정되였다. 평안북도는 녀자배구경기에서 부정행위를 한것으로 하여 종합순위에서 10등으로 되였다.

전국도대항체육경기는 비록 막을 내리였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번 경기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드높은 신심과 락관을 가다듬은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은 민족체육을 비롯한 대중체육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보다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진군길에 나섰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온 나라가 10월의 체육열풍을 체육강국건설의 승리의 포성으로 이어갈 신념의 총진군, 비약의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글 본사기자 오철룡
사진 본사기자 림학락

땅에 진심을 바치면 알찬 열매가 주렁진다

단천시 화장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리정해동무와 농장원들

동해안에서 농사를 잘 짓는 농장이라고 하면 단천시 화장협동농장이 빠지지 않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참된 애국의 한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10년전 화장협동농장 관리위원장으로 사업하게 된 리정해동무는 이틀동안이나 농장의 포전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았다.

바다가에 자리잡고있는 농장의 거의 모든 논이 모래땅이고 덕지대의 밭들은 비가 온 뒤 해가 나면 호미날도 탕탕 튀여나는 진흙땅이였다.

관리위원회로 돌아와 걱정에 싸여 필지별시료에 대한 분석표를 들여다보던 그는 눈앞이 번쩍 트이는것만 같았다. 분석자료에 의하면 오랜 세월 광산지구에서 흘러내린 미광침전물이 논에 깔려있어 농작물의 생육에 좋은 각종 미량원소들이 충분히 포함되여있었던것이다.

(흙깔이를 하자. 논의 모래흙은 덕지대의 밭으로, 밭의 진흙은 논으로!)

그는 곧 농장원들과 마주앉았다.

《우리 농장은 지금까지 매해 농사총화에서 등수를 꼽으면 시안의 수십개 농장들중에서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순서에 들군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농장이 얼마든지 동해안농사에서 장훈을 부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정해동무는 신심에 넘쳐 말을 이었다.

—논의 모래흙은 밭으로, 밭의 진흙은 논으로 날라다가 흙깔이를 하자. 그리고 정보당 7t이상의 흙보산비료를 내며 모든 포전에 하나의 빈포기도 없게 하자. 이 세가지에 력량을 집중하고 영농자재보장을 따라세우면 새해농사에서 얼마든지 장훈을 부를수 있다.

작업반장, 분조장들과 농장원들은 열렬히 호응해나섰다.

다음날부터 작업반별경쟁속에 흙깔이전투가 벌어졌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관리위원회 일군들과 리당일군들이 모두 떨쳐나서고 기계화수단이 총동원되였다.

논은 해발 2~3m계선에 있고 밭은 해발 20~30m되는 덕지대에 있어 흙깔이전투는 쉽지 않았다. 일부 분조들에서는 비료만 충분히 보장되면 소출을 높일수 있다고 하면서 흙깔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리정해동무는 농장원들속으로 들어가 흙깔이전투의 중요성을 깊이 심어주었다.

—땅을 떠난 농사에 대해 말할수 없다. 가을에 알찬 열매를 거두어들이자면 자기가 다루는 땅을 잘 알아야 하며 땅에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성분들이 충분히 포함되여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고있는 흙깔이는 땅에 그러한 성분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전투이다.

그는 작업반, 분조들에서 흙깔이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키였다.

한달동안의 흙깔이전투에 이어 리정해동무는 정보당 7t이상의 흙보산비료를 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리정해동무는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가 시작되면서 포전마다 하나의 빈포기도 없게 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그는 매일 포전들을 돌아보며 빈포기가 없는가를 확인하군 하였다. 그는 관리위원회성원들과 함께 영양단지모를 옮겨심은 강냉이밭들을 돌아보았다. 한 작업반의 포전에 이른 그는 포기사이간격이 맞지 않고 빈포기도 있는것을 보고 즉시 작업반장과 분조장을 찾았다. 작업반장, 분조장이 나타나자 그는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옮겨심은 후 포전들을 돌아보았는가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농민은 땅을 떠나 애국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이 비여있는 자리에 가슴을 대고 들어보라. 한생토록 땅을 가꾸는 우리는 강냉이포기가 설레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바로 이곳에서 자기의 숨결, 애국의 숨결이 끊어졌다고 생각해야 한다.

리정해동무는 아무리 흙깔이를 하고 질좋은 흙보산비료를 냈다 하여도 빈포기가 있으면 정보당 소출을 높일수 없고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민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고 준절히 말하였다.

리정해동무의 이러한 높은 요구성은 모든 작업반, 분조의 포전들에 하나의 빈포기도 없게 하였다. 농장에서는 그해 농사에서 놀라운 소출을 내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동안 농장은 해마다 한달동안의 흙깔이전투, 정보당 7t이상의 흙보산비료내기 그리고 빈포기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어길수 없는 전투과업으로 틀어쥐고 내밀어 동해안에서 제일 농사를 잘 짓는 농장으로 이름떨치고있다.

땅은 그 땅이지만 땅과 숨결을 같이하며 살붙이처럼 아끼고 가꾸니 알찬 열매를 주는것이였다. 뼈심을 들여 땅을 가꾸고 빈포기가 있을세라 정성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소출을 높일수 있다는것을 농장원들은 실천을 통하여 절감하게 되였다.

지난해 농장은 태풍피해와 큰 물피해에 이어 해일피해까지 입게 되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시적으로 농사를 제일 잘 지은 농장의 하나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뜻깊은 올해 년초부터 흙깔이, 흙보산비료생산, 빈포기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벌리며 땅에 애국의 땀을 묻어온 리정해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은 지금 최고수확년도를 내다보면서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고 털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로주봉

원군은 우리의 보람

평성락원상점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는 자랑이 많다.

해마다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는 자랑, 일터를 사회주의맛이 나게 꾸리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해나가는 자랑,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제도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해제끼는 자랑…

그 많은 자랑가운데서 이들이 첫번째로 꼽는 자랑은 원군사업에서 앞장선 자랑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보위전초선에선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조국의 방선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후방의 인민들은 뜨거운 원군으로 선군의 내 조국을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여러해전 평성락원상점 지배인으로 임명된 리경희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많던 그때 그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어버이장군님의 전선시찰소식이였다.

방대한 일감앞에 잠시나마 마음이 나약해졌던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며 일어선 그는 어버이장군님의 전선길을 걸음걸음 따라서는 원군의 길에서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리라 마음다졌다.

《물론 해야 할 일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원군사업을 힘있게 벌리자는것을 제의합니다. 어버이장군님의 전선길을 마음속으로 따라서며 원군길을 걸을 때 혁명적군인정신도 더 깊이 체득하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군의 호소에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호응하였다.

본신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원군사업이 동시에 힘있게 벌어졌다.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언제나 초소에 마음을 두고 병사들처럼 살며 일하는 이들에게는 뚫지 못할 난관이 없었다.

언제인가 일터를 사회주의맛이 나게 꾸리는 통이 큰 사업이 진행될 때였다. 대다수가 녀성들인지라 힘에 부쳐하는 종업원들도 없지 않았다. 리경희동무는 당세포비서 조광철동무와 조용히 마주앉았다. 이윽토록 말이 없던 리경희동무가 한동안이 지나서 무겁게 입을 열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계획했던 원군사업을 뒤로 미루는게 어때요?!》

그러자 당세포비서의 얼굴에는 서운한 빛이 력력히 어리였다.

《전 지배인동지가 원군사업으로부터 맡은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원군은 우리의 생활이고 종업원들의 더없는 긍지와 보람으로 되였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고 마음을 초소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리경희동무는 언제나 곁에서 힘을 주는 당세포비서가 그때처럼 고마와본적이 없었다. 원군의 불길은 다시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세차게 지펴졌고 그 나날에 일터의 면모도 더욱 몰라보게 달라졌다.

장명순, 리옥별, 오혁철, 김영희, 림달미, 김영란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원군의 길을 걷고걸으며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었다. 그들은 원군사업을 더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대건설전투장들마다에는 이들이 새겨온 원군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졌다.

그 나날에 집단은 힘있고 전투력있는 대오로 자라났으며 원군을 잘하는 단위로 널리 알려졌다. 선군의 덕을 입는 공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에게 안겨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분에 넘치는 감사를 받아안고 이들이 격정의 눈물을 흘린적은 또 얼마인지 모른다.

지난 5월 어느날 이들은 또다시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방금 진행한 아침독보를 통하여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를 깊은 감동속에 접한 이들이였다.

《전 미림승마구락부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을 찾아가자는것을 제의합니다.》

당세포비서 조광철동무가 마디마디 힘을 주어 하는 말이였다.

《우리도 군인건설자들을 찾아갑시다.》

이구동성으로 터치는 종업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리경희동무는 미더운 그 모습들을 뜨거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여 그들은 또다시 정성껏 마련한 원호물자들을 안고 지난 6월 미림승마구락부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을 찾아가 큰 힘과 고무를 안겨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기간 인민군군인들과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한 이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원군의 길에서 저희들은 정말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대고조전투장들을 다녀오면 우리 종업원들은 모두가 더욱 앙양된 열의를 안고 어렵고 힘든 과제들을 수행해내군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원군의 길을 계속 힘차게 걷겠습니다.》

우리와 만난 지배인 리경희동무가 밝게 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그것은 그 하나만이 아닌 원군을 잘하는 집단으로 알려진 이 단위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일것이다. 우리는 원군의 길에서 그들이 이룩할 보다 큰 성과들을 믿어마지 않았다.

본사기자

총련일군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최성영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의 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의 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절세위인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진다.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의 부강번영과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겠다.

대표단은 또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평양기초식품공장 등을 참관하였다.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65차회의 결정서 조인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65차회의 결정서가 14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김용철 전력공업성 부상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서인표 중국국가전력망공사 총경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측대표단 성원들, 양작원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경제무역참사가 참가하였다.

김용철부상과 서인표총경리가 결정서에 수표하였다.

꽁고공화국 정부대표단 도착

가꼬쏘 쟝 클로드문화 및 예술상을 단장으로 하는 꽁고공화국 정부대표단이 1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한철 문화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세계보건기구대표단 도착

쌈리 플리안방창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계보건기구대표단이 1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맞이하였다.

꽁고공화국 정부대표단

세계보건기구대표단

중국방문 조선청년친선대표단 출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청년친선대표단이 1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정영원부위원장을 비롯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부대강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가 전송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박도제 교또부 미나미야마시로지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65차회의에 참가하였던 중국측대표단 귀국

평양에서 진행된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65차회의에 참가하였던 서인표 중국국가전력망공사 총경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측대표단이 14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경제무역참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박근혜가 동남아시아를 행각하여 우리를 못되게 헐뜯었다.

그는 행각기간 치마바람을 일쿠며 만나는 사람마다 북주민들의 생활이 어떻다느니 뭐니 하면서 《북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하도록 설득》해달라느니, 《옳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느니 하고 청탁하는 추태를 부렸다.

그런가하면 저들의 반인륜적인 우리 주민유인랍치행위에 협조해줄것을 애걸하고 지어 개성공업지구가 다시 돌아가게 된것을 남의 도움에 의한것처럼 《감사》니, 《긴밀한 공조》니 뭐니 하고 역겹게 놀아댔다.

실로 해괴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박근혜는 동족대결미친증에 걸리다보니 무엇인가 잘못되여 동서남북까지 헛갈린 모양이다.

우리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총력량을 집중하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 공화국에서는 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도처에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세상을 놀래우는 천지개벽이 일어나 사회주의번영기의 새시대를 펼치고있다.

박근혜가 눈뜬 소경이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온 세상이 경탄하여마지 않는 우리의 격동적인 현실을 모를리 없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떠들다 못해 밖에 나가서까지 인간쓰레기들의 악담을 그대로 되받아넘기며 동족을 악랄하게 헐뜯는것을 보면 박근혜야말로 대결광란증에 걸린 정신병자가 아니면 치매환자가 틀림이 없다.

더우기 외세와 함께 《제재》요 뭐요 하며 우리를 질식시키기 위한 국제공조책동에 미쳐돌아가고 북침핵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광란적으로 벌리는 등으로 우리와의 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누구의 《주민생활》이 걱정되는듯이 허튼 망발을 줴치는 그 요사스러움과 뻔뻔스러움은 참으로 경악할 지경이다.

집권하여 선거공약까지 뒤집으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려 인민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게 한 박근혜가 그 누구에 대해 《주민생활》이니 뭐니 하고 말할 체면이나 있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이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자살자가 세계최고를 기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줄줄이 떠나겠는가.

박근혜는 마땅히 도탄에 빠진 저들의 민생부터 돌아다보고 제코나 씻어야 할것이며 미군강점과 전쟁책동에 탕진하는 막대한 돈을 민생에 돌려야 할것이다.

박근혜가 우리의 핵포기를 떠들고 지어 불법무법의 반인륜적범죄인 우리 주민유인랍치행위까지 도와달라고 남에게 애걸한것 역시 향방을 모르고 헤덤비는 정신착란증상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옳바른 제정신을 가졌더라면 핵문제가 어떻게 되여 발생되였고 오늘 핵위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똑바로 가려보고 마땅히 미국상전에 대고 할 말을 해야 했을것이며 주구로서 자기가 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다른 나라들에 도와달라고 그것부터 청탁해야 했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미국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없이 오히려 상전과 핵전쟁책동에 더욱 광분하면서 동족의 핵보검을 내리게 해달라고 구걸청탁하는 놀음을 벌린것은 그가 초보적인 리성과 판별력마저 잃어버린 미국의 특등 핵전쟁하수인, 식민지주구라는것을 보여줄따름이다.

우리의 핵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떤 사명을 수행하는 핵인데 그것을 알대로 아는 다른 나라들이 박근혜따위가 아무리 무엇이라고 재잘거려도 코방귀만큼도 여기지 않았을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이번에 박근혜가 개성공업지구가 정상가동의 길에 들어서게 된것과 관련해서도 얼토당토않게 횡설수설하면서 청탁하는 놀음을 벌리였는데 그것은 우리에 대한 극도의 무지와 사대적근성만을 더욱 드러내여 만사람의 랭소를 자아냈을뿐이다.

더구나 박근혜는 푼수없이 우리 주민유인랍치와 같은 반인륜적범죄에 남을 끌어들이려 하다가 국제법도 천륜도 안중에 없는 국제정치깡패, 인신거간군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꼴이 되였다.

박근혜는 이번 행각을 통하여 우리의 대외적영상을 흐리게 하고 저들의 불순한 동족대결목적을 이루어보려고 하였지만 얻은것은 하나도 없으며 자기의 몰상식한 수준과 추악한 정체로 하여 세계면전에서 망신만 톡톡히 하였다.

박근혜가 8일간에 걸쳐 동남아시아를 행각하고 돌아왔지만 남조선에서는 제 족속외에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한명도 없으며 안팎으로 남조선을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은데 대한 비난과 격분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있다.

안에서 배격받으면 밖에 나가 머리를 식히고 한숨 돌리는것이 리명박이나 박근혜나 똑같은 상투적수법이지만 그것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것 같다.

박근혜는 말끝마다 그 누구의 《옳바른 선택》에 대해 떠들고있는데 옳바른 선택을 해야 할 당사자는 다름아닌 그 자신이다.

우리는 박근혜가 이제라도 리성을 되찾고 자신을 욕되게 하는데로 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후과는 막심할것이며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것이다.

주체102(2013)년 10월 14일
평 양

반공화국대결광신자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총련중앙단체일군들 담화 발표

총련중앙단체일군들이 9일 괴뢰패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책동을 규탄하는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리정만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리사장은 우리 공화국의 인내와 노력, 동포애적아량에 의해 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된데 대해 재일동포상공인들모두가 기뻐하면서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기대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남조선의 현 통치배들은 10.4선언에 명기되고 북과 남이 리행하기로 합의한 문제들을 완전히 페기해버리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 반통일문서를 내놓으며 반민족적, 반통일적언사를 함부로 늘어놓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더욱 간과할수 없는것은 박근혜가 대결광대극을 련일 벌려놓고 《대화있는 대결》과 그 무슨 《원칙론》에 매달리면서 심히 불손하고 주제넘은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있는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북남관계가 위기에 처한 지금에 와서 더 요란하게 동족대결을 고취하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과 폭압소동에 미쳐날뛰는 남조선보수패당을 견결히 지탄한다고 그는 밝혔다.

강추련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재일동포녀성들은 미제와 괴뢰보수패당의 무분별한 동족대결책동에 대처하여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성명을 적극 지지찬동하며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는 거족적투쟁에 떨쳐나설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고 언명하였다.

지금 박근혜패당은 지난날 리명박역도가 북남관계를 완전히 동결, 후퇴시킨 반민족행위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기는커녕 동족대결소동으로 북남관계를 또다시 위기에로 몰아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뿐만아니라 공화국의 응당한 경고에 심각히 반성할 대신 도전적인 망언을 늘어놓으며 《종북》세력탄압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통일애국인사들의 정의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북남공동선언들을 기어이 리행하는것은 온 겨레의 드놀지 않는 확고한 의지라고 하면서 전체 재일동포녀성들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를 앞당기는 전민족적인 투쟁에 합세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차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그 무슨 《신뢰》요, 《원칙》이요 하는 궤변들을 줴치기 전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고 가로막은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남공동선언들을 짓밟고 반통일, 반민족적행위를 일삼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비참한 말로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패당은 공화국의 경고를 똑바로 새겨듣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전체 재일조선청년들은 북과 남, 해외의 청년들과 굳게 련대련합하여 괴뢰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 반민족적행위를 과감히 짓부셔버릴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을 12일과 13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고립압살봉쇄조치를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대변인은 조선반도비핵화가 조선정부가 실현하려는 불변의 정책적목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미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전역의 비핵화이다.

미국은 전제조건을 내세운 대화나 관계개선에 대하여, 핵무기를 먼저 내려야 불가침이 있다는 날강도적인 주장에 대하여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대변인은 끝으로 미국이 조선에 대한 각양각색의 고립압살봉쇄조치를 철회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조선반도는 물론 미국본토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담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이 내놓은 불가침제안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줄수 없지만 핵을 가진 우리의 자위적혁명무력은 모든것을 지켜주고 담보해주게 되여있다고 언명하였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제날의 약소국이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은 조선을 반대하는 제재부터 철회하여야 하며 각종 전쟁연습을 비롯한 모든 도발행위들을 즉시 전면중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나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이란의 파르스통신과 프레스TV방송, 미국의 AP통신, UPI통신, VOA방송, 영국신문 《데일리 텔레그라프》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을 보도하였다.

우리 조국에 핵위협을 가하는 미제를 단죄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이 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7일에 발표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담화에 접한 재중조선인들은 우리 조국에 핵위협을 가하는 미제를 강력히 단죄한다고 밝혔다.

미제가 《죠지 워싱톤》호항공모함타격단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목표로 무모한 핵전쟁연습책동에 광분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세계가 다 보고있는것처럼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고안자도,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도, 공화국에 핵위협을 가하고있는 당사자도 미국이라고 단죄하였다.

재중조선인들은 대조선적대시정책도, 조선을 공격할 의사도 없다고 한 미행정부 고위인물들의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재중조선인들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과 마음을 합쳐 미국에 강력히 경고한다.

불의의 핵공격을 노리다 자멸하지 않으려면 미국은 당장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재중조선인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일심단결위력과 핵무력을 비롯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며 그 누가 감히 공화국을 건드린다면 조국인민들과 함께 침략자들에게 천백배 복수의 불벼락을 안길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공화국이 만단의 격동태세를 갖추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조소받는 《약속》,《신뢰》의 정치

《약속을 지키는 신뢰정치인》, 이것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현 괴뢰집권자가 즐겨 외우던 말이다. 그는 눈만 뜨면 《희망의 새시대》니, 《국민행복시대》니, 《경제부흥》이니 하는 귀맛좋은 《공약》타령들을 쉴새없이 늘어놓으며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큰소리쳤다. 그것이 과연 현실로 되였는가. 달콤한 그 모든 《공약》들은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현 괴뢰집권자는 《거짓말명수》로 증오의 도마우에 올랐다.

최근 남조선에서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기초년금》공약문제만 놓고보기로 하자.

《기초년금》공약이라는것은 65살이상 되는 모든 로인들에게 매달 얼마씩의 《기초년금》을 지급한다는것으로서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현 괴뢰집권자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내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공약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그것이 취임 몇달만에 파기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론의 비난이 비발치듯 하자 현 괴뢰집권자는 《세입》이 부족하고 《재정형편》이 한심하여 어쩌는수 없이 공약을 실행할수 없게 되였다고 《사과》하는 놀음까지 벌리였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나 현재나 괴뢰들의 한심한 재정형편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것은 보수패당이 지지표를 얻기 위해 아무런 고려도 없이 야당후보를 누르기 위한 마구잡이식의 공약을 내놓았다는것을 말해준다. 당시 《새누리당》패거리들은 현 재정형편에서도 세금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기초년금》공약을 실행할수 있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보수패당은 권력을 쥔 지금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가싶게 현 조건을 거들면서 민심을 우롱하고있다.

《기초년금》공약뿐이 아니다. 현 괴뢰집권자가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민심을 꼬드기기 위해 내놓았던 핵심공약들이 모두 이런 형편에 처했다. 이로 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괴뢰당국에 대한 원성과 비난이 도처에서 터져나오고있다.

각계는 현 괴뢰집권자가 《〈불통대통령〉, 〈거짓말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하면서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야당들은 현 괴뢰집권자가 리명박역도와 대결할 때 한 말을 상기시키면서 《나도 속고 민중도 속았다.》고 야유하고있다. 지어 남조선의 로인로동조합은 현 괴뢰집권자를 《사기협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온 남조선 각계가 민심을 기만우롱하는 괴뢰패당에게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있다.

민주당대표는 《〈기초년금〉공약후퇴는 로인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대단한 약속위반》이라고 하면서 집권자는 《〈기초년금〉공약만 뒤집은것이 아니다. 16개이상의 〈복지공약〉이 모두 후퇴하거나 백지화되였다.》고, 온 민중에게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란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초년금〉공약까지 후퇴한다면 집권자가 만든 〈3대복지공약〉모두가 하늘로 날아나는셈》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민중을 우롱한 《선거사기》라고 주장하였다. 민주로총도 기자회견을 열고 괴뢰당국이 《선거공약》을 일방적으로 깨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참여련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년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이 애초부터 공약실현의지가 없었던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땅바닥에 떨어진 〈신뢰정치〉》, 《입만 열면 원칙과 신뢰, 약속의 정치를 강조하던 집권자이기에 실망의 충격이 너무 크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민주화는 실종됐으며 〈복지〉는 가물가물하다.》, 《공약후퇴에 민심 들끓는데 자기 할 말만 하는 〈불통대통령〉》이라는 비난과 조소의 글들을 련이어 싣고있다.

현 괴뢰집권자가 《약속》과 《신뢰》를 말끝마다 외우면서도 자기가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들고나온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모조리 줴버리는데 대한 민심의 비난과 규탄은 이렇듯 강렬하다.

현 괴뢰집권세력의 망동으로 하여 지금 남조선은 극도의 정치적혼란과 파국상태에 빠져들고있다.

현실은 현 남조선의 정치적위기가 괴뢰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정의 산물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대화상대방에 대해 그 무슨 《약속》과 《신뢰》를 운운하자면 우선 저들이 인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것이 아닌가. 《선거》공약도 마구 줴버려 규탄받는자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약속》을 떠들고 《신뢰》를 입에 올리는가.

괴뢰들은 동족을 헐뜯기에 앞서 저들의 부당한 처신에 대해서나 돌이켜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향 미

박근혜의 퇴진과 괴뢰정보원해체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초불집회

제국주의자들의 강압적인 《민주주의》주입책동

력대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에 서방식《민주주의》를 먹이려고 별의별짓을 다해왔다. 20세기 후반기에는 주로 《평화적이행》전략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내부를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서방식《민주주의》를 이식시키기 위해 획책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힘의 방법으로 서방식《민주주의》체제를 세워보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강행하고있는 서방식《민주주의》의 강제적도입은 지난 시기의 《평화적이행》전략에 매달리던 시기이상으로 엄중한 후과를 몰아오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행정부 책임자는 스웨리예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전략개관》주제의 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제10차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공이 그 나라들에 《민주주의》를 가져다줄수 있다고 하는것은 위선이며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은 분쟁들에 대한 외부의 간섭이 분쟁을 중지시킨것이 아니라 지연시키고있으며 보다 많은 인명피해를 빚어낸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라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실태를 근거로 들면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원래 매개 나라들에서의 민주주의는 외세의 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수립되여야 한다. 외세가 저들의 《민주주의》를 표본처럼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들에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강박하는것은 그 나라 인민을 모독하고 우롱하는 행위이다.

어떤 민주주의를 수립할것인가 하는 선택의 권리는 오직 해당 나라 인민에게 있다.

서방식《민주주의》가 력사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국주의어용나팔수들의 소리는 궤변이다. 지금 현대제국주의가 날마다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고있지만 출로를 전혀 찾지 못하고있다는것은 온 세계가 알고있는 사실이다.

서방식《민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식《민주주의》이다. 개인적리익과 방법에 상관없는 실리를 얻는것을 《진리》로 보는 개인리기주의적 실용주의철학에 기초하고있는 미국식《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아니라 독점자본가들의 리해관계를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가장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부르죠아정치방식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에서 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를 실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의 서로 다른 계급과 계층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고있으며 불평등과 불균형도 날로 심화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은 썩어빠진 저들의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들에 도입하기 위해 공공연히 힘을 사용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은 국제사회에 엄중한 부작용을 가져오고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강압적인 《민주주의》도입책동으로 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였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에서 전쟁들과 분쟁들이 일어났으며 이 지역들의 정세는 여전히 긴장하다. 제국주의세력은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의 체제를 비방중상하면서 그 나라 내부를 분렬, 혼란시키고 그를 구실로 로골적인 군사적개입의 길로 나가고있다. 정세분석가들과 언론들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주도하의 나토가 일으킨 전쟁들은 랭전시기보다 랭전종식후가 더 많다.

제국주의자들은 힘에 의거한 서방식《민주주의》도입책동을 앞으로도 계속 강행해나가려 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그러한 책동의 기본지역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동맹들을 강화하고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다. 일본, 남조선 등 추종세력들과 결탁하여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창설을 완비하려 하고있다. 나토는 동쪽에로의 확대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의 넓은 지역에서 군사작전활동을 벌려나가려고 획책하고있다.

이러한 책동들로 하여 여러 지역의 안전구도에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안전구도에 금이 가면 곧 평화가 깨지게 된다. 미국 등은 침략책동, 패권주의정책을 실시하면서도 걸핏하면 평화타령을 늘어놓군 한다. 그들이 평화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강권행사의 연막이다. 강권행사가 횡행하는 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로 될수 없다.

서방식《민주주의》가 도입된 나라들이 민주주의의 페허지대로 되고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자그마한 싹마저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교파들과 종족간 모순이 심한 이 나라들에서는 서방식《민주주의》가 도입된 후 사회적인 화해, 단합이란 말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개념으로 되고말았다. 이 나라들에서의 정권쟁탈전은 서방나라들에서처럼 선거마당에서의 금전유희가 아니라 총으로 쏘고 폭탄을 터뜨리면서 죽일내기를 하는 피투성이싸움으로 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이라크에서는 시아파이슬람교도들이 이끄는 정부와 순니파이슬람교도들사이에 모순과 갈등이 커지면서 폭력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4 000여명의 이라크사람들이 폭력사태로 사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뿐아니라 서방식《민주주의》가 강제적으로 도입된 다른 나라들에서도 정치적, 경제적난관이 더 심해지고 파벌싸움, 종족분쟁이 매우 치렬해지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은 사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놓고서도 그에 대해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또 다른 나라들에 서방식《민주주의》를 도입하려고 눈에 피발이 서서 날뛰고있다.

엄중한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분쟁은 《인권침해》니, 《인도주의위기조성》이니 뭐니 하면서 크게 문제시하지만 서방식《민주주의》가 강제도입된 나라들에서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과정이 지속되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도 안하고있는것이다. 결국 제국주의자들의 《민주주의》의 강제도입책동은 철두철미 남을 희생시키고 그 대가로 자기의 리익을 추구하며 지배주의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강도행위이다.

국제법은 어떤 나라, 어떤 세력이 자기의 리기적목적실현을 위해 주권국가의 리익을 침해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유엔총회 회의들에서 채택된 선언들에는 모든 국가들이 어떤 구실을 걸고 다른 나라의 국내외문제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주권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요소들을 반대하거나 국가주권반대를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사상과 리념, 정치형태가 저들과 다르다고 하여 다른 나라들을 힘으로 압살하려는것은 국제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범죄이다. 로씨야대통령행정부 책임자는 《자위권행사가 아니거나 유엔안보리사회의 승인이 없이 취해진 임의의 힘의 행사는 침략으로 평가될수 있다.》고 말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있으며 악용되고있다.

현실은 매개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옹호고수해나가자면 힘이 강해야 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힘이 강한 나라들에는 저들의 정치형태를 강요하려 하지 못한다. 어느 나라든 자주성을 지향한다면 힘으로 서방식《민주주의》를 강요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보다 강한 힘으로 맞서나가야 한다. 이것은 21세기의 복잡한 실태가 요구하는것이다.

리 경 수

축산업의 나라

몽골은 아시아의 중동부, 로씨야와 중국사이에 위치하고있는 내륙국가이다.

북부와 북서부는 해발 3 000m이상의 험한 산악지대이고 동부와 중부는 구릉성고원이다. 동부와 남부를 련결하는 몽골고원이 전령토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몽골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있어 세계적으로 대륙성기후의 특성이 가장 뚜렷한 나라이다. 추운 겨울이 길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심하며 해비침률이 높다.

몽골은 《축산업의 나라》로 알려져있다.

몽골의 축산업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 령토의 많은 부분이 짐승들을 방목할수 있는 풀판이고 주민의 대다수가 축산업에 종사한다. 인구 1인당 집짐승마리수는 세계적으로 앞선 자리를 차지한다.

말을 타고 무연한 초원을 하얗게 뒤덮으며 구름떼마냥 흐르는 양떼들을 몰아가는 유목민들의 모습은 《축산업의 나라》- 몽골의 이채로운 풍경이다.

몽골정부는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몽골에서는 최근년간 목축업에만 치중하던 농업구조를 다각경리로 개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에 따라 한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농민들의 수가 늘어나고있다.

지금 몽골에서는 국토의 적지 않은 면적이 사막화의 위험에 처해있다. 몽골정부는 토지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약 1 000km의 구간에 500m이상의 폭으로 총 9억 5 000여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록색장벽》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내밀고있다.

2014년까지 공업개발지구를 건설함으로써 지하자원을 원료로가 아니라 가공품으로 수출하며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총생산액을 2~3배로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몽골정부와 인민들의 노력에 의해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이 이룩되고있다.

건설, 수송, 식료공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관광업도 발전하고있다.

경제가 2011년에 17%, 지난해에는 12% 장성함으로써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가장 빨리 장성하는 나라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몽골이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은지 65돐이 되는 날이다.

김 수 진

미군무력증강배비책동 배격

필리핀의 한 환경단체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군무력증강배비책동을 강력히 배격하였다.

미군무력의 증강배비가 나라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해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미군이 수십년동안 주둔해있은데로부터 산생된 환경파괴에 대한 배상을 아직도 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미군은 필리핀의 공동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는것을 중지하며 환경파괴에 대한 배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31160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